

2023년 1,2월 대만 선교 편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올해 1월에는 기도 편지를 드리지 못하고 1,2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1,2월을 한국에 머물면서 그간 방문하지 못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 작년 12월 22일에 갑자기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식을 하였습니다. 2년간 혈액암으로 약해지셨지만 많이 회복 되셔서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엄동설한 중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봐 주시고 많은 뒷바라지를 해 주신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이시기에 저희 가족 모두는 큰 슬픔 가운데 여러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 선교사는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장녀로서 곁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큼니다. 그러나 저희 대신 저희의 자녀들과 또 교우들이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본교회와 선교지의 교회에서 더 많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효도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때 받은 말씀은 요 13:1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2018년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두어 달 동안 저희 부부는 20여년간 가족처럼 지내게 하셨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을 일일이 만나 뜨거운 작별의 포옹을 나누며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만간 저희가 또다시 대만으로 들어가는데 역시 얼마 동안 섬길 수 있을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알려 주십니다. 대만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대만인들을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엮여 주신 것은 아마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는 듯합니다. 장모님 암투병 기간동안 많은 대만의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 어떤 자매는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대만에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 왔는데 저희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후원교회 초청 선교 보고 및 세미나

코로나로 2년 넘게 후원 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했기에 대만 선교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고국의 몇몇 교회(익림, 뿌리깊은, 대광, 신장위, 하늘비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거치며 위축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를 쉬지 않으

러는 고국의 교회들을 볼 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있었기에 대만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머무는 동안 황후회(황선교사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그간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지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가려 합니다.

두 달간 저희 계획과는 좀 다르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요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처 인사 못드린 교회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귀국할 때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깊은교회 선교헌신예배



황후회(황선교사 후원회)



신장위교회 장로 연합 모임



대광교회 선교 세미나



하늘비전교회 다문화 아동들과



늘푸른청소년 미래재단 참석

대만 소식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대만의 식구들과 계속 온라인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저희가 가족마저 돌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대만에 와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더 열심히 주일 예배와 기도, 심방에 힘쓰는 소식을 보내올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3월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삼성 교회: 목사 부부가 가장 춥고 모이기 힘든 1,2월을 새벽기도제단을 중단하지 않고 참석 못하는 교우들에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베이 교회: 주일성수하는 교인은 아직 적지만 18명이 SNS로 교제권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흥산 교회: 오는 8월 말레이시아 20명, 9월 인도네시아 11명 단기 선교를 조직하여 2월 19일에 첫 모임을 가졌고, 5주에 걸쳐 단합대회를 하며 준비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책을 동남아 화교 교회들에게 보급하고 그곳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서 사역: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를 제자훈련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 사모 모임 등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에 도전 받고 기뻐하며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제자훈련/독서 토론의 교재로 더 많은 교회와 신학교에 보급되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움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 근황

저는 작년부터 협심증 증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 있었다며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는지 몸을 사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던 제가 이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치아 염증을 참고 살다가 이번에 치과를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제 때 건강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회복이 빨라서 3월 초에 대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요섭) 대학졸업

저희 아들 딸이 어릴 때 조부모님이 돌봐 주셨는데 이제 장성하여 연로하신 조부모님을 가까이서 많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 요섭이는 한동대에서 상담 심리와 멀티 미디어를 전공하고 이번에 졸업하였고, 딸 혜진이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경대와 공동석사 과정을 신청하여 4월부터 일본에서 1년간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자녀를 외가에 맡기고 중국으로 떠났던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협력하는 주베이, 흥산, 삼성, 베이따, 따푸 교회가 2023년에는 내적 외적으로 부흥의 해가 되게 하소서. (주베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소서)
2.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 문서가 더 많이 보급되고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3. 2023년에는 <십자가의 도> 제자훈련 과정을 타이베이와 이란 지역에서 개설하여 주님의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
4. 한국에 있는 가족, 특히 12월 장모님 소천 후 장인 어른의 영육간 강건을 지켜 주시고 가정 이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2023년 2월 28일 ,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